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제 3탄 홍익대 김성희 교수



“예술혼으로 출발한 북경 파산즈 798지역 연 매출 6조원 대박”

경매회사 120여개 활기...세계 현대미술 주도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추진 광주시에 '본보기'

“중국 파산즈는 작가와 갤러리들이 몰려들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처럼 문화예술창작촌을 조성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주최로 '현대미술과 인문학' 세 번째 강의를 열린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 홍익대 미술대학원 김성희 교수가 새로운 국제 미술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미술의 최전방' 북경 파산즈 798의 자료 사진을 보여주자 150여명의 수강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에는 크고 작은 경매회사만도 120여개이며, 미술시장 연매출액도 6조원을 넘어서 등 세계미술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산즈 798지역은 뉴욕과 함께 현대미술의 메카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곳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의 미술 흐름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 중심의 미술시장이 미국으로 이동한 것은 거대한 자본과 체계적인 국가 정책 때문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서양 화단이 신흥 자본과 '아시아의 신비'를 앞세

운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넓은 땅과 자본, 문화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중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 미술이 중국 파산즈의 변화를 더욱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산즈는 단순히 예술인들이 모여 작업을 하는 예술창작촌으로 끝나지 않고, 상업갤러리가 모여들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작가 작업실과 갤러리가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또 파산즈의 성공 요인으로 ▲싼 임대료 ▲

대형설치작업이 가능한 건물구조 ▲교수, 작가, 평론가 등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대규모 외국 자본과 유명 컬렉터, 화랑의 유입 등을 꼽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 파산즈에 창작센터를 오픈해 지역 작가 5명을 입주시킨 것에 대해서도 “세계 미술 중심으로 진출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문화 행정”으로 평가했다.

“미래도시가 끊임없이 건물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로 미뤄보면, 낡은 건물을 문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킨 파산즈의 성공은 중요합니다. 한국도 단순 기능의 예술창작촌을 조성하는게 아니라 '자생력을 지닌 끊임 없이 성장하는 문화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익대 김성희 교수가 16일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강좌에서 중국 파산즈의 성공모델을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폭에 날아든 나비 예술이 되다

화가 황선화·최미남·김현정씨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에 130여점 전시

함평나비축제의 아름다움이 화폭을 물들인다. 나비를 모티브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온 황선화, 최미남, 김현정씨가 오는 23일~5월9일까지 함평에서 열리는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에 대표작 130여점을 공개한다.

능소화와 나비를 소재로 화려하고 독창적인 색감의 동양화를 선보여 온 황선화씨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 '능소화-나비의 사랑' 시리즈를 통해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다.

돌가루인 석재와 분체를 섬세하게 다져 쌓아올리는 작업을 통해 나비와 꽃에 고도의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환상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나비의 꿈'을 주제로 뉴욕과 도쿄 등에서 9번의 개인전을 연 김씨는 작



황선화 작 '능소화-나비의 사랑'



최미남 작 '사랑가'

품 속 나비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날아오르고자 하는 꿈을 선사한다.

함평나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을 역임한 최씨도 힘있는 곤충이지만 아름답고 신비하며 우아한 세련미를 뽐내는 나비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

여준다. 한편 올해 제12회 함평나비축제는 꽃과 나비,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17일 동안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오월 창작가요제 '청'

5월 21일 금남로 5·18 특설무대
대상 1천만원~5월5일까지 접수

5·18 30주년을 맞아 '젊은 목소리'로 오월을 되새겨 보는 가요제가 열린다.

제 1회 전국 오월 창작가요제 '청(靑)'이 오는 5월 21일 금남로 5·18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시대와 호흡하는 젊은 정신과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와 건강한 정서가 담긴 노래로 록, 힙합, 국악, 클래식, 민요, 포크, 팝 등 장르의 제한은 없다.

참가접수 마감은 오는 5월 5일까지로 음원, 악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예선(음원 및 악보 심사)은 5월 6~7일 광주 소리모아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2차 예선은 15일 KBS 광주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본선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도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www.518music.net. 문의 062-226-51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신대 음악학과 '재즈 인 스프링'

20일 광주문화회관

'화사한 봄날, 신나는 재즈 속으로'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실용음악 전공 정기연주회 '재즈 인 스프링'이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미국 명문 재즈학교인 뉴스쿨 음대, 뉴욕대, 버클리음대 등에서 재즈를 공부한 해외 유학파 출신 교수진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뮤지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흥겨운 무대다.

특히 재즈오케스트라를 비롯, 정통 재즈부터 록, 펑크, 퓨전재즈 등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로 눈길을 끈다.

박수용(색소폰), 피아노(박종화), 트럼펫·비브라폰(임민수), 김귀훈(기타), 강운숙(피아노), 베이스(김성광)씨 등이 트리오, 콰텟 등을 구성,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Still a friend of mine', 'The chief', 'Higher Ground' 등이며 호신 재즈 오케스트라는 '블루 보사'와 '뉴욕 뉴욕'을 들려준다. 그밖에 HS 아카펠라 그룹과 호신가스펠코러스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2010 Spring Festival' (2010 봄맞이 축제) featuring various performances and events. It includes a table of activities and their locations.

Advertisement for 'Gabol' (가발) hair salon. It features a large '50만원' (500,000 won) price tag and mentions 'SBS-KBC' and 'NAYEON'.

Advertisement for 'Cheolmanpyo Bangsuje' (철만표 방수제) waterproofing product. It includes the slogan '책임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We are responsible from construction to completion) and '누구도 할 수 없는 100% 방수성!!' (100% waterproofing that no one can do!).